



# 알로하·하와이

—ALOHA HAWAII—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광 호

## 紀 行 抄

### ◇ 서울에서 「호놀룰루」까지

목적이야 있건없건 여행, 그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

그래서 여행은 아무리 반복을 해서 익숙해 있다해도 그 특유의 흥분만은 늘 새로운 맛이 나게 마련이다.

그것도 땀내가 흠뻑뻑 만원 시골 버스타던가 3등 완행밤차를 타는 (이건 이것대로 맛이 있지만) 국내여행이 아니고 보니 이별을 아쉬워하는 가족들의 심정이야 어떻든 내 마음은 사뭇 들뜬 풍선 그대롭이다.

상하(常夏)의 나라 「하와이」!

사실, 어릴적부터 얼마나 가보고 싶어 꿈에 그리던 곳이었던가.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이 기쁨을 무엇 때문에 젊잔을 빼가며 억제한단 말인가? 수속을 마치고 기내(機內)에 들어서니 향긋한 냉기(冷氣)가 오히려 낮에 설게 느껴진다.

후덥지근한 거리, 사무실 그리고 집에서 느끼던 소시민의 여름철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계절이 있는성만 싶다.

오후 2시 30분, 기내에 금연과 벨트작용 「시그널」이 켜지고 거센 바람을 내뿜으며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할 때까지도 기창(機窓) 밖은 여전히 여름 한낮의 열기(熱氣) 때문에 모든 것이 느리게만 보인다.

이제 기내는 잔잔한 엔진소리와 승객들을 위해 점심밥을 나르는 「스튜어데스」들의 바쁜 내왕뿐. 나는 잠시 폭풍같던 지난 며칠간의 분주함을 되

새기며 오는 조름을 등경까지만이라도 쫓아 버리려고 애써 보는 것이다.

이번이 내겐 세번째 해외여행.

72년말의 인도, 태국여행, 그리고 73년 여름의 호주여행 모두가 나를 흥분시키고도 남을 행운이었다고 늘 생각해 왔지만 이번 「하와이」 여행이야 말로 내겐 황금같은 행운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가 주최하는 인구문제 하키세미나에 참가신청을 낸 것은 서너달전.

주임교수님의 강력한 추천과 「하와이」대학 박재빈 교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어느정도 자신은 했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참가 신청을 낸 터이므로 막상초청장을 받고난 기쁨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각국의 대학에서 인구문제를 강의하는 교수들의 모임이고 보니 그 내용의 질적인 면에 거는기대가 무엇보다 컸고 설사 「하와이」가 미국엘가고 오는길에 들릴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해도 한달간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만큼 「하와이」를 속속드러 보기가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구름위로 눈덮인 후지산(山)을 멀리 바라보며 「하네다」 공항에 내린것이 오후 4시 40분. 미국행 연결선(連結線)을 타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남아서 일행중 몇사람은 시내구경을 나가자고도 했지만 아까운 돈만 길에 버리는 꼴이될테니 공항에서 기다리자는 의견에 도달, 몇가지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저녁 9시 우리가 타고갈 비행기는 하늘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잠보 74.

이번까지 세번째 타보는 비행기다. 380여석의

기내는 잘 꾸며진 극장속 같다고나 해야할지.

이 비행기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침 9시경이라고 하니 지금 잠을 자두지 않으면 내일 고생할것 같아 앉자마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해본다.

× × × ×

「알로하·하와이」!

아침 9시의 「호놀룰루」 공항에도 예의 만나는 반가움과 헤어지는 서글픔이 있고 급하게 오가는 동양사람들은 내게 조금도 낯설다는 느낌을 안준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몸을가린 덩치 큰 아가씨들을 경이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이국에 와 있다는 현실감을 되찾아본다.

대학에서 나온 버스로 「하와이」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니 아침 11시 속으로 정해진 「할레마노아」 기숙사 12층에 말끔히 단장된 독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침대, 옷장, 책장, 책상 그리고 그 위에 한다발의 유인물들……. 침대에 벌렁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4주간의 팍 짜여진 강의와 「워크샵」에 관한 대강의 스케줄을 훑어보는 사이, 설칠 지난밤 잠이 삼시간에 돌아오는 피곤을 어찌지 못해 눈을 감아 버린다.

#### ◇ 동서문화의 가교(架橋) East-West Center

하와이 대학 캠퍼스안에 자리잡고 있는 동서문화 센터는 1960년 미국의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교육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미국과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여러나라 국민들 사이의 친선과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각국간의 문화와 기술교환, 교육훈련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센터는 매년 1,000여명에 이르는 사람을 장기, 또는 단기교육 훈련시키는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미국의회가 결정해서 보조해주는 돈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여러 원조단체와 다른나라 정부의 보조,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그 기금을 늘이고 있는데 1971년에 미국의회가 이 기관에 배정한 돈만도 약 560만불을 넘는다.

이 돈은 앞서말한 목적에 따라 연구비로 지급

되는 이외에 미국을 비롯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러나라에서 선발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곳 하와이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공부하는데 쓰여지기도 하며 이외에도 각국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이곳에 와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쓰이거나 세미나등 단기교육훈련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1960년 설립된 이후 1971년말까지 이 센터가 혜택을 준 사람은 40여개국 약 22,300명에 이르며 석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600명이 넘는다.

이중에는 한국 사람도 600여명이 이 센터장학금을 받아 공부했거나 단기훈련에 참가했는데 현재 학위과정중인 사람도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등에 50여명이나 된다.

이 센터의 기구, 시설 및 스태프를 보면 인구 연구소를 비롯, 문화, 식량, 기술개발, 정보교환에 관한 5개의 연구소가 있어 각기 독립적 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내가 참가하고 있는 세미나는 이 다섯개 가운데 인구 연구소가 1970년 이후 여름마다 한달씩 갖는 인구문제에 관한 모임으로써 금년이 다섯번째이다.

17개국에서 6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각나라 대학에서 인구문제를 강의하는 교수들의 모임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세계 석학들을 초빙하여 강의와 「워크샵」을 갖는 것으로 이 센터가 주관하는, 꽤 알려진 세미나중의 하나다. 시설로는 6개의 빌딩과 넓은 캠퍼스를 갖고있는데 모두 하와이 대학구내에 자리잡고 있다.

강의실과 도서관등 교육시설과 극장, 식당등 오락 및 복지시설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데 모두 국제적인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세워진 것들이다.

학생 기숙사로 쓰이고 있는 13층 건물 하나는 우리나라 이씨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이은씨의 아들 이구씨가 건축설계에 관여 했다고 한다. 내가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는 한달동안 이 건물 12층에 묵고 있는데 시설이 무척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한 것을 느낄수가 있었다.

이들 건물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 동서

문화 센터의 공헌에 감사하는 뜻으로 정원을 회사하거나 휴게소를 지어주기도 하고 조각하나 그림등을 기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이 전혀 시설에 공헌하지 못한것이 꼭 서운한 생각이 든다.

이 기회에 정부나 어느 실업가가 이 캠퍼스안에 예쁜 8각정 하나라도 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사무직원을 합쳐 약 200여명에 이르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10여개국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약 60%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한국 사람도 2세나 3세까지 있어서 확실히는 몰라도 10여명은 됨직한데 이들 모두가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무척 흐뭇하다.

여기서 특히 빼놓을수 없는 자랑으로는 다섯개의 연구소중 가장 규모가 큰 인구 연구소의 조이제 박사에 관한 얘기가.

금년 7월 1일로 이 연구소의 소장이된 조박사는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분으로 하와이대학 사회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인구문제 연구와 학생, 교수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 큰 공헌을 해서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 쉐미나도 5주째인 그 마지막 1주일간을 서울에서 Field trip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60여명의 외국 참가자들을 서울로 유치하는데도 조박사의 공이 결정적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외에도 하와이대학 보건대학원의 교수인 박재빈박사, 기술개발 연구소의 연구원인 한영환박사등이 중요한 일을 맡아보고 있는 분들이다. 한편 하와이 대학에는 한국인 교수가 약 30여명이 있으며 이중에는 학과장(學科長)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꼭 이름있는 학자도 여럿이 있다.

의과대학은 역사가 짧아 그동안 졸업생을 내지 못했으나 내년에 첫 의사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곳 의과대학의 한국인 교수로는 앞서 말한 박재빈 교수와 생리학의 홍석기 교수, 외과의 홍필훈 교수, 소아과의 서세모교수등이 있고 임상병

리에 조교수 한분이 있다고 한다.

#### ◇ 「하와이」 그리고 「하와이안」

「하와이」 인구는 출생수에서 뿐아니라 미국본토나 아시아 및 유럽 여러곳으로부터의 이민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 국제조사로는 이곳 인구가 77만여명. 이 숫자에는 5만 5천의 군인과 6만 2천의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1900년만해도 15만4천이던 인구가 1940년에 42만으로 늘었는데 「하와이」 인구의 82%가 이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섬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섬은 인구밀도가 1평방마일에 천명이나 되는 실정이다. 외국이민중에는 필리핀에서의 이민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 「하와이」 인구의 특징은 매우 젊다는점과 인종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전 인구의 50%가 25세이하이고 전인구의 4분의 1이 타인종간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사람들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이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는 점이다.

병원분만은 99%에 이르고 1971년의 평균수명이 남녀 각기 70.5세와 77.2세로서 1885년의 평균 36.5세에 비하면 배의 수명이다. 영아사망도 16.2밖에 안된다. 이곳 사람들은 「하와이」가 광견병이나, 마라리아, 탕기열, 황열 및 콜레라가 전혀 없는 세계 불과 몇군데중의 하나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천연두도 그 마지막 발생기록이 1913년 이었다고 한다.

최근 조사로는 이곳에 병원이 31개(약 5천병상)가 있고 161개의 「너싱홈」이 있다고 한다.

1971년 조사에 의하면 평균재원 일수는 7.5일로서 그 회전율이 매우 빠른 편이고 의사수 약 1,100명, 치과의사 500여명 그리고 간호원이 4,000여명이라고 한다. 수년래 갑작스런 건축붐과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공기와 물을 더럽히게 되었다고 걱정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공해대책과 제한규정도 무척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등록된 자동차수는 무려 50만대를 넘고 있다.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학생 2만명

이 넘는 「하와이」 대학말고도 4년제 단과대학 2년제 초급대학등이 여러개 있다.

「하와이」 대학은 학사과정만해도 66개 분야이고 석사과정이 64개분야, 박사과정도 33분야나 된다.

이곳 주민의 개인소득도 상당히 높아서 1971년 통계로는 1인평균 4,800불 정도나 된다. 반면에 물가가 꽤 높은 편이다.

1971년 4인가족이 중간정도의 생활을 하자면 년 1만3천불이상이 드는 정도인데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보다 평균 19%정도 높은 지출이라고 한다.

언어는 물론 영어가 공통어이긴 해도 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오키나와어 그리고 필리핀어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어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본인이 많고 거리 상점마다 일본어 간판이나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이다.

일본계 「하와이」인이 전체 주민의 약 25%정도라고 하나 「하와이」를 동경도(都) 하와이현(懸)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이다.

정부의 요직이나 경제계의 거물들 그리고 「하와이」대학 교수들까지도 일본계가 거의 판을 치는 실정이다.

어느날 주정부(洲政府) 청사에서 만난 한 한국인 2세는 그러나 소수의 한국인이 갖는 긍지는 어느 다른 인종의 그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편견없는 자신이라며 그가 제시하는 통계에 의하면 이곳 하와이에 있는 한국인은 전 주민의 약 1% 정도인 7천에서 8천. 그러나 정부 공무원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나 된다.

신분이나 인망에 있어서 공신력이 두터운 공무원수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이 <정예소수>라는 것이다. 「하와이」에 7년째 왕래하는 KAL의 Y기장은 한국서부터 내가 잘 아는분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또 년전 실시한 가구경제력 조사에서 각 인종간의 년 국민소득을 보니 이곳 한국인의 그것이 단연 수위였다는 것이다. 그

러나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곳의 한국인 가운데는 적잖은수가 술집을 경영하거나 술집에 웨이트레스」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내가 아는바로도 이곳 「호놀룰루」에 있는 한국인 술집은 즐잡아 90개. 어느곳에고 한국인 아가씨가 있다.

서울에서도 흔히 그렇듯 이들은 기반이 잡히는 대로 친구나 가족을 불러 들임으로써 결국 이런 계통 종사자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여자면 모두 술집 여자인줄 알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 「하와이」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어느 한국여자 대학원생은 이때문에 대학에서도 한때 고개를 못들고 다니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됐던 좀더 많은 한국사람이 「하와이」에 와서 살게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곳 교민 누구나의 희망이다. 적잖은 한국인이 아직 영어에 익숙치 못해 어떤 시내빠스엔 한국말로 『요금을 정확히 냅시다』라고 써 붙여야 할 정도이긴해도 아무보고나 일본말을 지껄이는 젊은 일본인들의 오만(傲慢) 같은 것은 없어 좋다.

#### ◇ 알로하·하와이

「Aloha」는 이곳 「하와이」 토착어로서 영어의 greeting love, welcome, farewell등에 해당한다. 우리말로는 인녕, 또는 환영이나 석별등의 뜻을 가진 셈이다.

길게만 느껴지던 4주가 어느새 다 지나버리고 나니 정말 만감(萬感)이 오가는걸 막을길이 없다.

60여명 각국 대표의 손발이되어 애쓰던 Miss Janks는 「제퍼슨·홀」에서 가진 수료식장에서 내가 대표로 건넨 선물상자를 받으면서 결국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두들 정이 들어 헤어지기가 섭섭한거다. 이제 공항으로 우리를 실어 나를 두대의 「리무진」이 기숙사 앞에 와서 서고 같은 숙소에 있던 각국 유학생들이 자기나라 대표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느라고 분주하다.

일행중 C교수의 후배라는 한 여학생이 우리 한국대표들의 목에 「레이」 목걸이를 걸어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향수질은 외로움을 읽어낼수

가 있었다.

지난밤 늦게까지 이 꽃잎들을 따서 손수 실에 꿰느라고 밤을 꼬박샘 피곤 탓이었는데…….

태극마크도 선명한 대한 항공의 잠보기에 몸을 싣고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하니 섬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모두가 다정하게만 느껴진다.

장장 2KM에 걸쳐 펼쳐진 「와이키키」의 황금빛 모래사장. 생각하면 그곳에 내가 밟고 불고기 구어 먹으며 몇 시간이고 수영하며 지내던 일.

이 「와이키키」에 연한 해발 321M의 사화산(死火山) 「다이아몬드·헤드」의 위용. 아침저녁 속소창문에 걸터앉아 스캇취도 해보고 카메라에도 담곤했던 이 「하와이」의 대표적 풍경이 지금 내 눈아래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1만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을 갖

춘 최대라는 「알라모아나·쇼핑센터」.

90여개의 유명백화점이 한 덩어리가 되어있는 이 「쇼핑센터」엔 모르긴 해도 이세상 물건가운데 없는 것이 없을것 같은 기분이다. 2차대전때 죽은 군인 2만명의 시체가 묻힌 「핀치블」 언덕의 국립묘지, 입구 400 폭의 세계적 천연군항(軍港) 「펠·하버」(진주만), 수백종의 바닷고기를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산호해안 「하나우마·베이」 묘기백출한 돌고래의 곡예에 넋을 잃게한 「Sea Life park」 그리고 「폴리네시아」들의 춤과노래로 초저녁 밤을 만끽했던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관광등……. 좀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생생한 추억을 되새기는 동안 기내(機內)엔 커튼이 닫혀지고 대문쪽만한 영화자막에 서부 영화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 ❖ 정기 총회 및 세미나 순서 ❖

#### <4월 25일 (금)>

- 2:00~2:30 등 록
- 2:30~2:45 개회사: 협회장 김창렬 신부
- 2:45~3:00 축 사: 총 재 안 주교
- 3:10~3:50 제 목: 병원의 인사관리  
연 사: 조 영 선 (가톨릭중앙  
의료원 사무처장)
- 사 회: 제찬규 신부  
(부산 메리놀병원장)
- 3:50~4:40 제 목: 병원의 재무관리  
연 사: 조 규 동 (가톨릭중앙  
의료원 경리과장)
- 사 회: 이인하 신부  
(대전성모병원장)
- 4:50~5:30 보 고: 의료도조사 결과보고  
맹 광 호  
(가톨릭의대)
- 6:00~7:00 저녁식사

- 7:00~8:30 토 의: 가톨릭병원협회의 공동  
사업방향  
안 용 팔 (가톨릭중앙  
의료원 기획실장)

#### <4월 26일 (토)>

- 7:40~8:20 미 사 (강론: 김창렬 신부)
- 8:30~9:30 아침식사
- 10:00~10:40 특 강: 외국원조단체의 활동  
연 사: 조 기 동  
(의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 회장)
- 10:40~11:10 보 고: 가톨릭 가족계획사업  
의 현황과 실적  
목포 성골롬반병원  
춘천 성골롬반의원
- 11:10~11:30 토 의
- 11:30~12:30 정기총회
- 12:30~1:30 점 심 (폐회)